

# 평화의 사도

재속 프란치스코 피닉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준비형제회 월보

Secular Franciscan Order of Phoenix  
St. Daegun Andrew Kim's Forming Group



평화의 사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2006년 10월 (제 29호)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5,7-9

7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8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9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월례회: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4시, 회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영적 보조: 장민호 미카엘신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Minister: Michael Reidy (480)722-9446

## 성 프란치스코 영적인 권고 < 2.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하는 악 >

1. 주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창세 2,16.17).
2. 아담이 순종을 거스르지 않았을 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동산에 있었던 모든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었습니다.
3. 그런데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善)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는 것입니다.
4. 결국 그 사람은 악마의 꾀에 빠져 계명을 거슬렀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5. 그래서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 입회기 양성교재 ‘폰테 콜롬보’

### <제9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회칙 2장 생활 양식

제10조

“회원은 성부께 당신의 의지를 의탁하신 예수님의 구원자적 순종을 본받아,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각자의 처지에 따르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은 곤란과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순종

순종은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쁘고 자유로운 응답으로 아버지께 완전한 신뢰를 둔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순종을 드러내셨다. 아버지께서 이루시려는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업은 아들 예수의 순종으로 완성되었다.



#### 2. 프란치스코 성인의 순종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프란치스코의 삶의 전부이다. 프란치스코의 완전한 순종은 어떤 경우라도 하느님 때문에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순종이란 내적 가난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자기의지의 포기는 가장 큰



본적이고도 어려운 가난이다. 프란치스코는 형제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기에 형제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한다. 물질적인 재산을 포기하는 것보다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므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지를 비워야 하느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를 얻게된다.

#### 3.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의 순종생활

재속프란치스코의 순종은 일상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이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교회에서 형제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처해진 어떠한 상황도 기꺼이 받아들여 주님의 수난에 동참한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듯이 부딪치는 삶의 어려움을 구원의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 성 프란치스코의 순종

원저 : Eugeme Kleczewski, O.F.M  
"St. Francis Of Assisi And Religious"  
Chapter II, Wayne Illinois, U.S.A. 1982  
번역 : 정순용(라자로)

언급하고자 하는 서약의 첫 번째는 순종이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형제들 없이 혼자서 생활하였다. 그는 주님 안에서 구원과 일치에로 나아감의 요구에 몰두하기 위하여 회개의 길을 발견하였다. 점차로 그는 이런 이해를 다양한 시련으로 복종시켜야 한다고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의 영감이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온다고 확신하였다.(하느님께서 친히 나에게 영감을 주셨다. - 유언, 1첼라노 33항, 2첼라노 92항)

프란치스코의 초기생활에서 우리는 프란치스코가 교황 인노첸시오 3세를 위해 베루지아와의 싸움에서 기사로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 기사가 되려는 꿈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스페레토에 이르러 프란치스코는 다른 형태의 봉사를 말해주는 환시를 체험하게 된다. 더구나 프란치스코는 그로 인해 위신이 깎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시로 되돌아옴으로서 즉시 응답한다. 그의 회개가 계속됨에 따라 그는 깊은 기도와 고독에 몰두했다. 마침내 반쯤 허물어진 성당 안의 십자가 안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 그는 다시 다른 메시지를 듣는다. “가서 나의 교회를 고쳐라”, 프란치스코는 즉시 작업에 필요한 돌과 도움을 구걸하여 성당들을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상점에서 불법적으로 옷감을 팔아 그 돈을 성당을 수리하는데 보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불화를 가져왔고 또 그 자신을 내면화 시켜 일생을 지속하게 한다. “이제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만이 계십니다.”

그 후에, 마태오 복음(10장 5-15절)을 듣고나서 사순시기동안 설교하였다. 그는 성부와 일치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 즉 가난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씀을 따르기 전에, 인간의 구원으로 보여진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성공적으로 도달한 것이 성부의 뜻이었다(대전기 9장 3항). 작은 형제들은 이전 생활 방식을 모방해야하며 피조물을 성부와 일치에로 이끌어야 한다(1첼라노 71항). 우리는 이런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의 가시적 표현이며, 우리가 성부의 영감을 알고

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다(권고 1항, 1첼라노 15항, 대전기 2장 2항 등),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순종 안에는 필요한 선교 자세가 있다. 프란치스코는 이것을 ‘형제회에 보내신 편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온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외에는 전능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헤아림으로는, 이런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이것은 프란치스코가 그의 생활로부터 배운 것이며, 그가 봉사자 형제에게 어떤 형제의 성소를 시험하도록 요청한 방법이기도 하다 - 비록 매우 이기적이 아닌 성소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성소를 시험하고는 즉시 봉사자 형제는 하느님께로 향한 길을 제시해야 하며, 작은 형제의 응답을 가로 막으려해서는 안된다(제2회칙 12장).

프란치스코는 그 자신의 생활로 보여주듯 이런 시험의 맥락에서 자유를 허락한다. 그는 하느님이 보내주신 그의 영감뿐 아니라 생활양식과 가난에 대하여 교회와 투쟁한다. 여전히 그는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형제들에게 권고한다. 비록 그것이 사제들에게 반대되는 것을 의미할 때조차도. 그러나 그는 사제를 존경했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형제회 안에 남아 있었다(권고 3). 프란치스코의 전기 작가들은 평화가 그 분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판별하는 기준이었다고 말한다(2첼라노 115항, 대전기 14장 4항).

또한 프란치스코는 비록 사람에게서 그것을 듣는다 해도 하느님의 뜻은 우선적이라고 단언한다.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의 내적 목소리에 대한 그의 순종, 스페레토에서의 그의 심연 속의 꿈, 또 마태오 복음 10장에 대한 교구 사제의 말씀, 아씨시 주교의 지도(세 동료의 대전기 10항)등은 주님의 뜻 안으로의

생생한 내적 조명이다.

프란치스코의 이런 순종(또는 유순성)은 와딩의 역사(the Annals of Wadding)에 대한 이야기에 잘 예시되어 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회의 요리사 스테판 형제에게 그 날 요리하지 말라고 명한다. 프란치스코가 다음날 식사하러 왔을 때 전 수도원 안에 오직 빵 조각 몇 개만이 있는 것을 보자, 스테판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스테판은 프란치스코에게 그의 명령을 상기시켰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대답하였다. “형제의 판단은 훌륭합니다. 어떤 이도 장상들이 명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Annals, #9, pp92-93). “레오 형제에게 보내신 편지”에서도 역시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나의 아들, 그대에게 나는 어머니와도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략- 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분의 발자취와 가난을 따르는데 있어서 그대가 보기에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그리고 나도 거기에 뜻을 같이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프란치스코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순종(또는 유순성)을 허용하였다. 그는 환경과 매일의 생활에 따라 변화를 허용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어떤 문장에서는 금식하도록 요청하고 다음 문장에서는 금식을 해제한다(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당신 앞에 있는 음식에 대한 복음적 가르침에 따라)(제 1회칙 3장, 제 2회칙 3장). 따라서 순종은 복음을 향해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회의 규칙들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그의 형제들에게 바란 순종의 모습이다. 권고 말씀들은 이런 유형의 순종을 반영한다. 권고 5는 “선은 우리 안의 하느님의 역사하심뿐이다.” 권고 17은 “작은 형제들에게 하느님에게 기꺼이 주었던 것을 이웃으로부터 다시 받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느님을 기다려야 하고 서로 인내하여야 하며 항상 그분의 뜻만을 구하여야 한다(권고 16). 이것이 형제들과 형제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인 순종인 것이다(대전기 9장 3항). 1221년의 회칙은, “우리가 세속을 떠난 지금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보다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제 1회칙 22장). 프란치스코는 ‘형제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다음의 기도로 결론짓고 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느님(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불쌍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 때문에 당신이 원하신 것을 실천케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항상 원하게 하소서.”

참다운 순종은 하느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권고 3). 그리고 장상의 뜻에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이요, 꺾박에도 불구하고 형제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며, (어느 봉사자 형제에게 보내신 편지) 자비의 성령 안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제 1회칙 5장). ‘어느 봉사자 형제에게 보내신 편지’는 이런 참다운 순종에 대한 가장 강한 표현을 하고 있다.

“나도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순종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이러한 행동을(무책임하고 난폭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대에게 주시는 것 외에 형제들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하고 바라지 말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그대에게는 은둔 생활보다 더 좋은 것인 줄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참다운 순종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원수들의 구원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작은 형제들은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화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형제들은 죄를 미워하여야 하나 그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권고 11). 더 나아가 형제들은 그들이 행한 잘못으로 화낼 수 없으며, 오히려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권고 9). 형제들은, 선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기에 이런 권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또한 모든 악이 악마로부터 오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유치한 본성과 습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권고 20). 만약 우리가 이런 덕행들 중 하나를 어긴다면, 우리는 그 모든 덕행을 깨뜨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에게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덕행들에게 바치는 인사). 권고 27은 “덕행들에게 바치는 인사”에 필적할 만하다. 덧붙여 주님께 대한 건전한 두려움은 하느님께 개방된 생활의 기초가 된다.

프란치스코의 순종은 이론이 아니다. 그는 교회의

영역 안에서 완전한 순종이 되길 원하였지, 그 시대의 다른 어떤 운동처럼 교회 밖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의 두 회칙들 안에서도 그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형제회의 총 봉사자를 통해 교황께 직접 순종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형제들은 총 봉사자에게 순종하도록 서약하였다(제 1,2회칙 2장). 비록 프란치스코는 글로 쓰여진 회칙(1223년)에 대한 교황의 최종 승인 전에도 이미 형제들은 여행 중에 회칙의 사본들을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비록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이 설교를 허락하는 문서나 편지를 청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하여 결국에는 그 서류를 작성하였다(유언).

한 마리의 작고 검은 암탉에 대한 첼라노의 이야기가 묘사된 것은 이 점에 대한 것이었을 것이다(2첼라노 24항).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형제회를 더 이상 지킬 수는 없으나, 이런 사랑의 생활에 대한 계획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꺼이 형제회를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의 손길에 내맡겼다(2첼라노 143항).

비록 프란치스코가 스스로 교황 아래에 위치하였지만, 그도 그의 봉사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주었다.(그의 생애 후반에...) (이것은 그런 것을 반대하는 두 회칙 안에 금지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지 이유는 봉사자들이 교회의 권위의 연장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2첼라노 188항).

교회에 대한 이런 순종이야말로 프란치스코를 그 시대의 다른 이교적 가난 운동들로부터 구별 지우는 것이다. 그는 교회에 대한 법규를 듣고 가능한 한 완전히 순종하였다(복음이 다른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제 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1년의 수련기를 요구하였을 때도 프란치스코는 그의 회칙 안에 이것을 집어넣었다(제 1회칙 2장). 평형제들의 설교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었을 때 프란치스코는 그의 회칙에 이것을 다시 덧붙였다(제 2회칙 9장). 그는 이전의 공의회 규칙들을, -비록 그것들이 본래적으로 사제들을 위해서만 쓰여졌다 하여도- 그의 형제회까지 확대시키기조차 하였다. 교황청으로부터의 허락이 없는 수녀원에 출입할 수 없는 금지 조항은 그 좋은 예이다. 프란치스코의 모든 편지들은 그가 교회에 바친 순종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는 즉 제 4차 라테란 공의회에 의하여 규정된 과도한 특권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뽀르찌온콜라(Portuuncula - 작은 뿔)의 특권을 성취한 것이다(세동료의 대전기 5장 2절, 2첼라노 18항, 대전기 2장 8절). 비록 이런 특권이 프란치스코의 살아 생전에 수여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의 일 백년 후에까지 널리 공포되지 않았다(Holzarte 저서, A Manuel of History, 1898. PB6,116 참조)

프란치스코의 순종은 교회에서 주교들에 대한 순종으로까지 넘쳐 나갔다. 프란치스코는 주교가 그들에게 설교하기를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 그의 형제들이 설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유언). ‘이물라’의 주교로부터 설교 허락을 청하여 거절당하자 그는 말없이 떠나갔다. 몇 분 후에 그는 바로 전의 거절을 기억하지 않은 듯 다시 되돌아 왔다. 주교가 그에게 되돌아온 이유를 물었다. 프란치스코의 겸손은 곧 그의 의도대로 주교에게서 설교 허락을 얻는다(2첼라노 147항). 또한 프란치스코는 그를 문맹이요, 무식한 자요, 무가치한 자로 부르는 ‘떼르니’ 주교의 비난을 받아들인다.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가서 진정한 내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리자 그때 주교는 그를 성인이라고 부른다(빠루지아의 대전기).

사제와 수도자에게 대한 프란치스코의 태도 역시 하나의 순종이다. 작은 형제들은 세상의 모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을 그들의 구원을 다루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들로서 간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제 1회칙 19장). 세상에서 가장 속화된 불쌍한 어떤 성직자를 만난다해도,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프란치스코는 설교하기를 원치 않았다. 더군다나 프란치스코는 어떤 성직자로부터도 그의 은총의 상태에 상관하지 않고 성체 성사를 기꺼이 모실 것이다. 또한 성직자들의 잘못을 감추어 주고 그들의 많은 결점을 메꾸어 주도록 권고하였다(2첼라노 146항). 이런 행동은 형제회에 들어오기 전의 실베스텔 신부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처신에서도 보여진다. 실베스텔은 그가 프란치스코에게 준 돌들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그는 프란치스코와 베르나르도가 베르나르도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자 이를 불평하였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돈을 한웅큼 가져다가 실베스텔에게 즉

시 주었다. 이 사건은 후에 그를 더욱 크리스찬적인 생활양식으로 회개하는 결과가 되었고, 결국 형제회에 입회하게 하였다(2첼라노 109항). 프란치스코는 그의 형제들에게 라우렌시오 성인과 어느 가난한 사제를 한 자리에서 만난 이야기를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말한다. “기다리십시오. 라우렌시오 성인! 이 사제의 손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만집니다. 이 손은 인간 이상의 거룩함을 지니고 있습니다.”(2첼라노 201항)

한번은 농부가 스쳐 지나가면서 프란치스코에게 온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인이 그인지 물었다. 프란치스코는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그때 농부는 프란치스코에게 모든 이가 이야기하고 기대하듯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라고 충고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권고에 감사하였다(2첼라노 142항). 그래서 가장 하찮은 사람에게서조차도 종종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였다.

만물들은 프란치스코에게 순종하였다(2첼라노 166-170항). 프란치스코도 또한 그들에게 순종하였다. 그가 라베르나 산에 있을 때, 그를 깨워준 때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매는 친절하게 노래하였고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감사했다(2첼라노 168항). 프란치스코는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하느님께 더 신심 깊고 순종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모든 이에게 하나의 예로 그들의 행동을 명시하였다.

프란치스코는 또한 모든 생명 없는 피조물을 통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찬미하였다(태양, 달, 별, 물 등 -태양의 노래-).

그는 시간경의 “영광의 찬가”(doxologia)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전치사 ‘-에 의하여’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성부께 대한 증재자로서의 피조물로 보았다. ‘불’ 형제와의 체험은 이것을 예시하여 준다. 그가 있었던 초막에 불이 났을 때, 그는 즉시 불꽃 안에서 모피를 끄집어내었다. 그런데 되돌아 와서는 그것을 그 지방사제에게 주면서 자기는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불’ 형제한테서 그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었다(완덕의 거울 117항). 리에띠에서 프란치스코가 그의 눈에 뜸을 떼었을 때 불 형제는 그의 순종에 보답한다. 그

는 불에게 그를 아프게 하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였다(2첼라노 166항).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피조물은 하느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불이 나면 ‘불’ 형제를 끄도록 허락하지 않았다(완덕의 거울 166항).

우리는 이미 성직자들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태도를 보았다(제 2회칙 8장, 10장, 권고 3항, 4항). 이런 순종을 프란치스코가 받아들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이야기는 그의 육체를 돌보는 것이었다. 프란치스코를 대신하여 형제회의 총 봉사자인 엘리야 형제는, 그가 동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후 눈물을 흘리는 병으로 말미암아 거의 눈이 멀게 되는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그와 우폴리노 추기경은 함께 만나 그 문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엘리야 형제에 의하여 리에띠로 가도록 명령받았으며, 거기에 있는 유명한 의사에게 그 병을 치료받도록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허약한 육체였지만 즉시 떠났다(1첼라노 98항, 101항). 이 유사한 이야기로 보아 프란치스코가 그의 육체를 취급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한 것은 한 형제의 요청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프란치스코에게 그의 육신이 그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결국 프란치스코는 눈물로, 그의 당나귀 형제(자기의 육신)에게 거의 온 생애동안 행하였던 지나친 취급을 사과하였다(2첼라노 210항).

프란치스코는 총 봉사자직을 사임하였을 때 어떤 형제에게 요청하여 그를 대신 할 특별 원장을 청하였고 그래서 그는 모든 이에게 순종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2첼라노 151항).

또한 그가 로마에 있는 주교의 성체 안에서 아주 심한 유혹을 경험했을 때, 형제들을 위한 그의 가난의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는 함께 온 형제에게 달려갔고, 그 날 밤이 그에게 너무 혹독했기에 유혹을 물리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였다(2첼라노 119항).

그리하여 그의 형제들에게 소유하기를 권고한 것처럼 프란치스코의 순종은 진실로 모든 피조물에게 향하였다. 홀로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리고 세상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또 주님의 뜻에 보다 쉽게 따르기 위하여, 프란치스코는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여겼다(텍행들에게 바치는 인사).

## 타 미주 지역 형제회 소식

♥ 11월5일 Soup Kitchen 봉사, 11월 12일 성경모임, 11월19일 월례회

<성 디에고 형제회 10월 월보>

♥ 10월 1일 산타아나 카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함께 음식 봉사하였습니다.

♥ 12월 15-17일 말리부 세라 피정의 집에서 형제회 합동 의무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월례회도 겸합니다

♥ 프란치스칸 영성학교가 지난 10월 7일 개강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9월 월보>



♥ 10월 6-8일 필라 형제회에서 주관한 제속 프란치스코회 미 동북부 합동 피정에 신부님과 형제회 회원 7명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4일 사부 성프란치스코 축일을 맞이하여 DC에 있는 지구 형제회 피정에 5명이 다녀왔습니다.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10월 월보>

♥ 10월 4일 사부님 축일을 맞아 10월3일 축일 전야 전이예식(Transitus)이 맨하탄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 김기수 프란치스코 영적 지도신부님께서 지난 9월 30일 무사히 소임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 2006년도 서약식 및 유기서약식, 11월5일 입회식, 12월 3일에 있습니다.

<뉴욕 한국 순교자 형제회 10월 월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 서간 5장 19절>

## 피닉스 준비형제회 소식 및 회계보고

♥ 11월12일(일) St. Daniel 성당에서 오후 6시 30분에 서약식 및 입회식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11월 11,12일 이틀에 걸쳐 김기수 프란치스코신부님을 모시고 성당 회관에서 피정이 있습니다. 회원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이웃 신자분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 10월 27일 김미카엘형제님택에서 평의회가 있었습니다. 입회, 서약식 및 피정 등 형제회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입회지원자 김미대자 데레사 자매님께서 환우중에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심스테파니아 자매님과 이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새 집을 장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보금자리였으면 하고 기도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1/30 김미대자 데레사 자매님

### <회계보고 9월말>

	항목	금액	합계
	8월 잔고		\$1320.00
지출	미사 봉헌 신부님 건강 불우 이웃을 위하여 미국 형제회 서약식 다과 월례회 다과(9월) 신신부님 송별금		\$60.00 60.00 30.00 102.62 200.00
잔고			\$867.38



“입 안에는 말이 적고,  
마음에는 일이 적고,  
뱃속에는 밥이 적어야 한다”

그리고 보면 말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들,  
하고 나서 곧 후회되는 말들,  
혹은 할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른 뒤 허물을 느끼는 말들,

숯한 말이 흐른 뒤에는  
늘상 그렇듯 공허함과 후회가 뒤따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마구 끄집어 내면  
후련해야 하는데  
아무리 끄집어 내어 보아도 남는 것은 허한 마음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말로 인해 후회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후회하지만 사람 앞에 서면 또 한없이 늘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한번 ‘아차’ 하는 마음이 들지만  
늦었습니다.

말에는 많은 허물이 따릅니다.  
그저 그런 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들은  
별 일 아니라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침묵하지 않고 내뱉는 그것만으로는 작은  
허물일 것 입니다.

침묵하는 자는 복의 말을 가꾸는 자입니다.  
내뱉어 허물을 짓기 보다  
아름다운 침묵이 내 삶의 잔잔한 속뜰이 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10월 월보에서...>